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1(土)	12(日)
비온뒤 맑음 9/13℃	구름조금 2/13℃

News

- 부동산대책 비난 빚발 ②
- 5·18 유공자 분신 기도 ③
- 동물가족 겨울나기 ④

Jeollado

- 그 사람-천승세 소설가 ⑦



Books

- 一家 이론 장인들의 삶 ⑩
- 드라마틱한 술 권력기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감 ⑬



동양지축은행 장학 56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s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광주 '犬公스타' 떴다



영화 '마음이...' 출연 '달이'

광주 출신 유명 배우가 또 탄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 개봉 12일 만에 관객 72만명을 모으며 박스 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영화 '마음이...'(감독·오달균 박은형)의 주인공은 영화인(人)이 아니다. 영화견(犬)이다.

영화 '집으로...'로 스타덤에 오른 유승호가 오빠 찬 역을, CF계의 꼬마스타 김향기가 여동생 소이 역을 맡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마음이'역을 맡은 레트리버 종 개 '달이'다.

'달이'가 지난 5일 오랜만에 집(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을 찾았다. 주인공 캐스팅 이후 촬영과 홍보를 위해 집을 떠난지 1년만이다. 회사를 휴직한 채 1년동안 '달이'의 매니저와 연기 지도를 맡았던 '달이 아빠' 김종권(44)씨 역시 오랜만의 휴식을 만끽하고 있다.

5살 먹은 암컷 '달이'는 오디션을 통해 정식으로 데뷔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윤종계 연에게에 입성하는 반짝스타들과는 애초부터 격(?)이 다르다. '마음이'역을 맡을 연기견을 찾아 전국 1천여 곳을 수소문한 제작사는 '달이'를 보자마자 바로 '오케이'사인을 내렸다.

1000대 1 오디션 뚫고 주연 발탁
개봉 12일만에 관객 72만명 모아
음흥·발랄·눈치... 내면연기 '척척'

"캠핑인 대회 우승을 휩쓸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우리 달이가 은퇴 후 심심해 하더라고요. 결국 인명 구조견으로 미국 입양을 보내기로 했는데 우연히 영화를 찍게 된거죠." '달이 아빠' 김씨의 말이다.

'달이'의 출연료는 5천만원. 출연이 결정되자마자 '달이'는 4개월간 정교한 연기 훈련을 받아야 했다. 평소에도 사람의 말 30, 40가지 정도는 알아 들을 정도로 영특했지만 연기는 처음이었다. 영화를 위해 몸무게도 42kg에서 32kg으로 감량했다.

"달이가 식탐이 많아서 다이어트 하는데 어려웠죠. 그런데 달이의 식탐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달이'는 영화배우들을 뺀다는 표정연기가 압권이지만, 종종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영화감독과 배우들을 애태웠다. 영화촬영 중 먹은 것을 손에 든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는 가 하면, 갑자기 촬영 도중 탄길로 쏜 것이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달이'의 식탐을 이용하는 것. 영화에서 기차를 쫓아가는 장면에서는 밥새를 맡고 쫓아올 수 있도록 낚다리가 사용됐다. 이밖에도 소시지나 오징어를 동원해 어려운 연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다친 장면을 위해 물엿과 색소를 섞어 피 분장을 했는데 배가 고파는 지 분장하는 동시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웃음) 또 갑자기 카메라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보는 일도 있었죠."

촬영 스케줄도 '달이'의 컨디션에 맞춰 진행됐고, 전용 차량과 최고급 호텔, 마사지까지 제공됐다. 또 촬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위험한 장면은 모습이 닮은 '달이' 새끼와 1천200만원을 주고 제작한 인형이 대역을 맡았다.



어려운 표현도 척척해내는 영화견(犬) '달이'가 '달이 아빠' 김종권 씨에게 훈련을 받고 있다.

달이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앞 발을 다친 표현뿐만 아니라 음흉한 뺨뺨, 발랄한 뺨뺨, 눈치 보는 표정 등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등 어려운 연기도 척척 해냈다. 아빠 김씨가 평소 '달이'의 표정을 외워 그런 표정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또 촬영 전부터 유승호 등 배우들과 '달이'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호흡도 잘 맞았다.

김씨는 "외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동물 연기를 달이가 훌륭하게 소화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달이는 11일 광주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과 하남점에서 각각 4시와 5시40분 영화 상영 후 무대인사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열린 '마음이' 사회에 조청도 받았다. 1948년 제헌의회가 문을 연 이후 58년만에 동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다. /권성정기자 ks@kwangju.co.kr

노숙자시설 화재 참사

광주 남구...4명 사망·3명 중상

노숙자 수용복지시설에서 불이나 이 곳에서 잠을 자던 수용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3면>

10일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새희망복지선교원' 내 쉼터 B동 2층 개건물에서 불이 출몰한 소방관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최운성(48), 서동욱(53), 김영근(73), 이현철(53)씨 등 4명이 건물 밖으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사되거나 불에 타 숨졌다.

또 김병오(48), 박현조(57), 염규웅(65)씨 등 3명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광주 동아병원과 씨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용자 대부분이 고령에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불이 난 건물 1층은 기숙사로, 2층은 기숙사와 욕실·주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날 이 곳에서 10여명의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전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 새희망복지선교원의 수용 시설은 광주 모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로 노숙자나 정신지체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와 개건물로 속속을 만들어졌다.

소방서 측은 이날 불로 쉼터 B동 2층(59.9평)이 전소했고, 950여만원(동산 800여만원·부동산 1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불이 건물 2층 욕실에서 시작돼 1층으로 옮겨 불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쉼터 B동에서 생활하고 있던 김모(40)씨가 화재 이후 행방이 묘연한 점으로 미뤄, 김씨가 불을 지른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적 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유엔, 내주말 '北 인권결의안' 표결

유엔은 다음주 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취할 입장을 집중 속의 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10일 전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정부는 다음주 초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의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하지

만 최근 6차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정부내 기류를 전했다.

유엔 사무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주도로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염주체육관

관람료: (062)220-0541, 1544-1216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00년의 사람-부채표
동화약품

김동원